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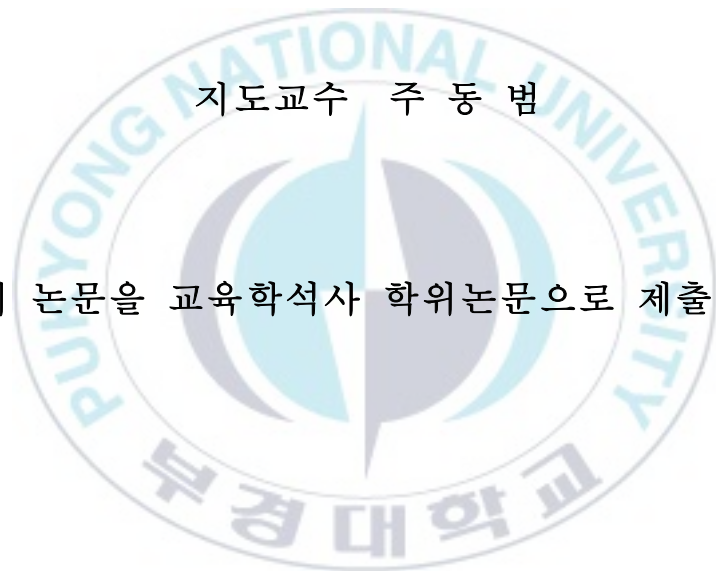
백 은 정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주 동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백 은 정

백은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주심 교육학박사 강승희



위원 교육학박사 천성문



위원 철학박사 주동범



목 차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5
나. 어린이집 적응.....	5
4.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7
1. 어머니 양육태도.....	7
가. 어머니 양육태도 개념.....	7
나.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	9
2.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15
가. 어린이집 적응 개념.....	15
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요인.....	19
3. 선행연구 고찰.....	27
III. 연구 방법.....	31
1. 연구대상.....	31
2. 측정도구.....	32

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33
나. 어린이집 적응.....	34
3. 자료수집방법.....	36
4. 자료 분석.....	37
IV. 연구 결과.....	38
1. 변인의 기술통계.....	38
2. 배경변인별 차이 검증.....	39
가.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	39
나. 배경변인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	43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	47
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49
V. 논의 및 결론.....	50
1. 논의.....	50
2. 결론.....	58
3. 제언.....	59
참고문헌.....	60
부록.....	69

표 목 차

<표 II-1> 어머니 양육태도 분류.....	14
<표 II-2> Jewsuwan et al. 유아 적응 측정 구성요소	17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54).....	32
<표 III-2>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4
<표 III-3> 어린이집 적응 검사도구 문항구성과 신뢰도.....	35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38
<표 IV-2> 자녀 성별,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 (N=254).....	40
<표 IV-3>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N=254).....	41
<표 IV-4> 자녀 성별,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N=254).....	44
<표 IV-5>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 (N=254).....	45
<표 IV-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48
<표 IV-7>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49

그림 목차

[그림 II-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10
[그림 II-2]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12



**The influence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on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Eun Jung Bae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how mother's backgrounds (age, academic background, state of working, child's gender) affect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Moreover, it shows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This research is useful to give mother advice who's infant has difficulty in adapting nursery school. Here, I determine the importance of the mother's role on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In addition, it suggests desirable way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Here are detailed questions of the research.

First, do mother's backgrounds affect o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Second,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Third, how does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ffect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The data come from 287 mothers and 37 teachers of the infants who are 1 to 5 years old using 5 different infant's nursery school in Nam-Gu, Busan. To investigat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I used a questionnaire survey of MBRI (Math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in Schaefer (1959) that had used in Jeong-Yeon Park (2008), Min-Hwa Kim (2016). To measure the level of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the infant's teachers filled up a questionnaire survey of PAQ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in Jewsuwan, Luster, Kostelink (2012) that was translated and edited by In-Kyung Kim (2016).

There are results.

First,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is affected by their academic background among mother's age, academic background, state of working and child's gender. Female infants show stronger ego strength compared to male infants. The infants whose mother gets higher academic background than college show strong ego strength. In addition, the infants whose mother has a job show more positive feeling, stronger ego strength, and higher peer group relationship than others.

Second,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Rejective child-rearing attitude gives positive effect on infant's feeling and peer group relationship. When mother grows the infant under self- or controlled regulation, it is positive effect on the infant's prosocial behavior, positive feeling, high peer group relationship, strong ego strength, adaptation on daily work. However, affectionate child-rearing attitude does not induce meaningful effect.

Thir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ffects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Especially, self-regulative and controlled child-rearing attitudes increase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although rejective and affectionate child-rearing attitudes do not influence on the infant's nursery school adap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와 고학력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오히려 출산을 피하고 결혼마저도 피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저출산 및 자녀 양육, 결혼 기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다. 그 중 자녀 양육에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이전까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던 정책을 2012년 만 0~2세 영아와 만5세(누리과정)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이후 2013년부터는 만3세와 4세(누리과정)까지 확대하여 유아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전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는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박수현, 2018).

이와 같은 무상보육정책 시행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육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어머니의 사회적 진출과 취업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양육되는 기회가 늘어났으며, 이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희망하는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2016)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2006년 29,233개소에서 2016년 41,084개소로 약 40.5% 이

상 새롭게 늘어났으며,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수 또한 2006년 1,040,361명에서 2016년 말 1,451,215명으로 약 39.5%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부모가 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시키려는 부모들의 욕구가 다수 반영되었음으로 해석된다(박향미, 2015).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으로 영유아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영유아기 발달과업을 잘 달성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 가정에서만 생활하던 영유아들이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주 양육자인 어머니 이외의 또 다른 제 2의 양육자인 교사를 만나면서 양육자가 바뀌는 새로운 변화로 긴장과 불안이 초래된다. 주 양육자와 헤어지기, 오전 간식, 오전 실내 자유 선택 놀이, 실외놀이, 점심, 양치 및 화장실 가기, 낮잠, 오후 간식, 오후 실내 자유 선택 놀이 등 반복된 일상 관련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적응)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영유아 개인별 기질이나 특성에 따라 적응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영유아의 어린이집적응은 영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어린이집 내의 규칙을 지키고 교사와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배려하며 어린이집 일과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하고자 할 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보호와 상호작용, 정서적인 안정과 배려를 제공해 주어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들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환경인 어머니는 영유아에게 가장 친숙하고 특별한 존재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며 영유아의 성격이나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어머니와의 관계는 자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영아들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병은, 2004), 어머니와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영유아기 이후 성장 발달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김민화, 2016), 어머니와의 관계 바탕은 어머니 양육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여길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는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편적이고 영구적(한재영, 2013)이며, 애착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사회화와 동일시 대상으로 여기게 되므로 중요하다. 영유아들의 일상생활 훈련, 훈육 등을 포함한 어머니 양육 태도는 전반적인 행위나 양육의 신념까지 포함한 것으로(양은주, 2010),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의미 있게 작용하고 어린이집 생활 중 또래나 교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 때문에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 및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관련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배경(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유무,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 차이가 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이하, 연령이 30대, 자녀가 남아일수록 교육기관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김민화, 2016) 나타났지만, 김유환(2015)의 연구에서는 여아일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집단의 유아가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 자녀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 태도 차이는 없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지현, 2010)와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차이는 없지만, 남아일수록 부적응 행동과 교사 의존도가 높아 어린이집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맞벌이 및 학력이 높을수록 자율적이고 허용적인 양육 태도로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이병은, 2004) 등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양육 태도와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자녀 성별)별 어머니 양육 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및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이해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영유아들의 보육에 질적 향상을 위한 도움을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어머니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자녀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child-rearing attitudes)는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양육 행동 중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Schaefer, 1959).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특성, 태도, 가치 체계, 사회성, 성격, 인성 등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원영(1983)이 번안한 Schaefer(1959)의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척도를 연구대상인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의 어머니에게 실시한 것으로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유형으로 분류한 양육 태도를 의미한다.

나. 어린이집 적응

어린이집 적응은 영유아가 자신의 필요와 어린이집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린이집 환경에 맞추어 가는 과정(김유환, 2015)으로 영유아 개인적 고유 특성과 어린이집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 가는 행동과정이다(박향미, 2015).

본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자아 강도, 하루 일과의 적응 등의 행동들을 낯선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또래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며 친숙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5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의 어머니와 해당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 태도와 어린이집 적응에 대하여 관찰 및 면접을 병행하지 못하고 질문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어머니가 행하고 있는 양육 태도와 다르게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유아의 어린이집적응에 관해 담임교사에 의한 질문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영유아가 실제 행동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 양육태도

가. 어머니 양육태도 개념

부모는 영유아가 출생하여 처음 접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부모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들은 성장 발달한다. 따라서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있어 부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장원동, 류현수(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상호작용 관계가 지속되고 부모가 가진 성격이나 태도는 자녀 양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하는 태도나 행동 양식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 태도에 대한 이론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념과 의미가 많이 변화되었다. 17세기 당시만 해도 가장 효율적인 양육 태도는 엄격한 훈육이나 체벌이었으나, 18세기 전문적인 소아의학이나 심리학 등이 발달하면서 양육 태도에 관한 새로운 인식으로 양육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Freud가 정신분석학을 발달시키면서부터 부모-자녀 관계는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기 시작하였고, Freud 성격이론은 유아기의 어머니-자녀 관계 중요성과 초기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장혜정, 2003), 요람에

서 경험이 잠재 의식화되어 추후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력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의 인성은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서창구, 2002).

이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chaefer(1959)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양육 태도라고 하였고, Becker(1964)는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양육태도라 하고, 이는 자녀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후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김희정, 2012).

Watson(1965)은 양육 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내현적 행동 및 태도로 정의하고, 개인의 사회화 과정 및 과거 경험, 가족 구성원이나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였다(임일현, 2016).

이미경(2012)에 따르면, 양육 태도는 아동의 부모나 주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이고, 이는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녀의 언어발달, 지능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성격발달 측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ishbein, Ajzen(1975)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여기고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나 행동으로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조현희, 2017).

일반적으로 모든 영유아의 양육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머니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존재로서 영유아들에게 사회화의 기초를 마련해 주며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역할 충족으로 모성애, 안정감,

신뢰감 등을 갖게 되고 어머니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나 행동은 자녀의 삶의 표본이 되며 인생의 기틀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rikson(1950)은 어머니와의 좋은 정서적 관계를 통해 유아의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Piaget(1962)는 영유아기에 내적 작용모델이 형성되어 불편한 자아개념이 형성되며, 영유아기에 주 양육자와 분명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는 평생토록 유지된다고 하였다(이미양,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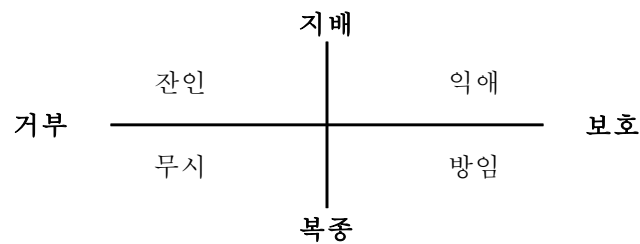
김희정(2012)은 영유아기에 형성된 어머니와 자녀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하며 이후 대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였고, 양은주(2010)는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 훈육이나 생활 훈련, 전반적인 영아의 행위 및 어머니의 신념, 가치관 등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유형을 양육 태도라고 하였다.

이렇듯 어머니 양육 태도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어머니 양육 태도를 종합한 개념으로 각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적, 보편적인 행동이나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

많은 연구자가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 태도 유형을 분류하고 개념화하였다. 20세기 초반에는 주로 Baldwin, Mead, Symonds에 의해 연구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Schaefer, Becker, Baumrind와 Bee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며(김신정·김영희, 2007), 최초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이론으로 체계화한 Symonds는 양육 태도를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으로 [그림 II -1] 과 같이 직교좌

표로 분류하였다.



[그림 II -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Symonds의 양육 태도 모형에서 거부적인 태도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거부형으로 나뉘고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정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과 적대적 감정을 나타내며 자녀는 애정 결핍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 거짓을 말하거나, 발달지체를 유발하는 행동이나 증상을 주로 나타낸다. 지배적인 태도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지배형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며 자녀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크게 기대함으로써 자녀는 대체로 순종적이고 예의가 바르지만, 반항적이고 자립성이 없으며 불안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보호적인 태도는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나뉘고 부모는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대부분 의존적이며,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래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주로 고립되기 쉽다. 복종적인 태도는 익애형과 맹종형으로 나뉘고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며,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자녀는 주로 자기중심적, 의존적, 공격적이며 사회성이 부족 되기 쉽다(조현희, 2017). 이처럼 Symonds는 부모 양육 태도를 처음으로 분류하고, 양육 태도를 체계화한 점에서 공헌한 바는 있으나 부모의 양육 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하

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 정상적인 준거로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김석현, 2006).

Baunrind(1973)는 통제를 제한적, 강압적 태도가 아닌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훈육으로 정의하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통제 형태에 따라 독재적 양육 행동, 허용적 양육 행동, 권위적 양육 행동으로 유형을 제시하였다. 독재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말대꾸하거나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의 개별성, 자립성, 자율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자녀는 규칙을 왜 따라야 하는지 모르지만, 부모의 지시와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게 된다. 허용적 양육 태도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자녀의 행동에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통제나 처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도우며 양육 행동을 다시 방종형과 방임형으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권위적 양육 태도의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의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자녀의 발달수준에 관심이 있으며 부모로서 권위가 있으며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규칙준수에 있어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김진경 외, 2014). Baunrind의 연구에서 허용적이거나 독재적인 양육 태도 보다 권위적인 양육 태도로 양육되는 자녀들이 유능성, 독립성 및 책임감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이는 적절한 훈육이 자녀의 발달에서 사교육 보다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윤숙, 2016).

Schaefer(1959)는 Symonds의 부모 양육 태도 모형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는 문제점을 밝히며, 정상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PARI (Parental Attitude Reserch Instrument)를 개발하였으며(최현진, 2016), 30년 동안 신

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발달과 부모 양육 태도를 연구하여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개념적 통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부모 양육 태도를 애정적-거부적, 자율적-통제적인 두 개의 축으로 분류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녀 양육에 관련된 각종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과 서로 대립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변수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를 설명하였다(임일현, 2016).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측정 도구인 이원영(1983)이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한 것으로 하위요인인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 태도 모형은 [그림 II -2] 같으며 각 유형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양은주, 2010).



[그림 II -2]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자녀에게 부모가 애정을 가지며 자녀의 행

동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 태도이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녀의 독립심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자유롭고 수용적인 태도로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 자녀에 대하여 대체로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통제나 복종을 피하고 부모 자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려 한다. 이로 인하여 자녀는 부모와 신뢰감을 느끼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더욱 능동적이고 활동적이며 타인에 대한 적대감 없이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된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엄격한 과잉보호형 양육 태도이다. 대체로 부모는 지나친 애정으로 언어적·심리적 통제 및 신체적 처벌 등 부모의 사전경험으로 자녀의 삶을 계획하고 학습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녀는 의존적인 성향과 사고 및 창의성은 부족하고 내적으로 불안한 정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과보호적이고 소유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셋째, 거부적-자율적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며 동시에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방임형 양육 태도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소홀히 여기고 냉담 적이며 거의 함께 하는 시간이 없으며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자녀는 자아에 대한 분노와 불안정, 공격적, 반항적, 반사회적인 정서와 내면화된 고통과 갈등으로 스스로 자학하거나 퇴행적인 성향을 보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갖게 된다.

넷째, 거부적-통제적인 양육 태도는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자녀를 관대함 없이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를 가하며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독재적, 요구 반목적,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로 인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적이거나 불순응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주성, 자발성, 독창성이 부족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자학적,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수줍음이 많아 사회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 외의 Schaefer(1959)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여러 연구자가 분류한 유형을 살펴보면 <표 II -1> 와 같다.

<표 II -1> 어머니 양육태도 분류

연구자	분류 내용
이원영 (1983)	애정적-적대적, 거부적-수용적, 외향적-내향적, 의존적 조장-독립적 조장, 통제적-자율적, 긍정적-부정적, 의존성- 독립성의 7가지 태도 요인 분류
김재은 (1988)	가정-불화가정, 허용적 가정-엄격한 가정, 친애적 가정-소원형 가족 등 3차원 분류
정원식 (1989)	수요-거부, 자율-통제, 보로-방임, 성위-안일, 개방-폐쇄로 양육태도 유형 분류
천희영 (1992)	양육 태도의 차원을 애정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 분류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학자가 연구하고 이론을 정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원영(1983)이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한 것을 박정연(2009)과 김민화(2016)의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의 하위요인 애정적 양육 태도, 자율적 양육 태도, 통제적 양육 태도, 거부적 양육 태도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가. 어린이집 적응 개념

적응에 대한 의미와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행동을 적응(adjust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적응의 개념을 ‘종(種)의 생존을 쉽게 하는 생물학적 구조 및 기능의 변화’라는 의미로서 유기체의 수동적 입장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해 살아남고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투쟁 과정’이란 의미가 있기도 한다(장성덕, 2007). 이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만족할 만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추어 안정을 취해 가는 과정이나 상태를 뜻한다.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며 합리적·능동적으로 욕구좌절,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오종은, 2001), 환경적 요구에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김인경, 2016).

이처럼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이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를 가지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이러한 제약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조건이나 특성을 환경에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김유환,

2015).

김인경(2016)에 의하면 Lazarus는 ‘건강한 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외적 적응과 내적 적응으로 설명하였으며 외적 적응은 사회·문화적 기준을 지키고 타인과 협조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적응은 자신을 주관적으로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 환경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적응’은 무조건 기준 집단이나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환경을 다시 개인에게 맞추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적응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김현주, 2000; 손인숙, 2001) 이거나, 개인이 능동적으로 환경에 참여하고 적응하는 것,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진보개선과 만족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김영옥, 2003)이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적응한다는 것은 새로운 집단의 규칙과 기대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며 새로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감을 의미하고(김난영, 2000), 하나의 문화권에서 환경의 요구를 개인이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이룩하는 것으로 훌륭한 적응이란 광의의 의미로 환경을 이용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교육기관에서 영유아가 조화를 이루는 협의의 의미를 정의하기도 한다(이희영, 2001).

Hinshaw(1942)는 적응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의미로 설명하였다. 첫째, 적응의 의미로 적응상황은 개인·심리적 요소와 사회·환경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적응문제는 이 요소 간의 변화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적응은 특정한 참조 체계(frame of reference)를 가지며 특정한 개인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족

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예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현재의 문화에는 잘 적응하지만 이를 벗어난 다른 문화에 적응은 잘할 수 없어질 수도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적응은 어떤 한 기준(norms)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에게 주어진 참조 체계에 따라 적응의 기준이나 표준도 상대적이 된다(구수연, 2005).

Jewsuwan et al.(1993)는 유아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친사회적 적응, 정서 적응, 또래 적응, 자아 적응, 일과적 적응 다섯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표 II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김현경, 2009).

<표 II -2> Jewsuwan et al. 유아 적응 측정 구성요소

적응구성요소	내 용
친사회적 적응	친구를 돕거나 함께 협동하여 놀이할 때, 놀잇감을 함께 사용하며 친구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임.
정서적 적응	즐겁게 교육기관에서 지내며,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또래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잘하고 놀이하는데 별문제가 없음.
또래 적응	또래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협동하여 놀이하고 잘 어울림.
자아 적응	스스로 독립된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자기주장을 함.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심을 보임. 적응 강도가 높은 유아는 자기의 의견과 태도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방해나 압력에도 저항할 확률이 큼.
일과적 적응	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교사에게 자신의 관심과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하거나 협조적임.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가정 밖의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생활 규칙을 잘 지키고 따르며, 또래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기관 생활에 적응하는 것부터 다양한 교육 활동 및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잘 익히고 수행하는 것, 교사의 요구에 순응하고 규칙을 준수하면서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김태연, 2016). 김보민(2011)에 따르면 영유아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부적응 양상이 지속될 경우, 영유아기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이후 학령기나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 및 사회 부적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적응 행동을 잘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 환경과 자신의 고유한 특성 및 욕구와 잘 맞추어 갈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일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불균형과 불안정 등의 긴장감 없이 어린이집 생활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강은선, 2010). 즉, 어린이집 적응이란 새로운 환경과 낯선 양육자인 교사, 또래 친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일어나는 여러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안 영유아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최소화되고 어린이집을 편안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채경화, 2013).

보육 과정에 근거한 어린이집 하루일과 적응에 대한 개념은 충분한 적응기간을 통하여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여기는 것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이란, 울지 않고 보호자와 헤어지는 것은 물론 일상적 양육과 보육 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6). 적응은 유아기 이후의 학교 생활과 그 밖의 사회적 적응력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므로 영유아의 성장에 있어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 역할수행을 최고의 목표로 여길 때 그 시작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부터라고 여길 수 있으며, 그만큼 어린이집 적응의 중요성은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에게 가정을 벗어난 낯선 환경으로 인식되므로 더욱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더욱 우호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반대로, 부적응으로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보이며 어린이집을 퇴소하는 과정을 통해 좌절을 겪고 이런 경험은 이후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게 된다(강성희, 2017). 그 때문에 적응의 문제는 자신에게 직면한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한 영유아기만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살아가면서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요인

가정을 벗어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적응해 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최고의 과제로는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기능적이거나 학습된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내의 규칙이나 규범을 습득하고 지키며,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며,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인정받는 것을 배우는 것(임말자, 최경순, 2003)으로 물리적인 환경, 어린이집 일과, 또래, 보육교사와 같이 외적인 구성요소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규칙 등 적응 내용은 광범위하다(김춘화, 2015). 김희정(2012)은 어린이집 입소와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영유아들은 개인적 자율성 및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적응을 위한 경험들은 영유아의 개인적 성

향에 따라 낯선 곳에서 비교적 쉽게 안정을 찾고 적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성향으로 불안정하고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연령, 성별, 기질, 정서 지능과 가정환경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 및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 어린이집 환경요인으로 교사요인, 보육 환경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요인을 들 수 있다.

(1) 개인적 특성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영유아가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구성원들과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고자 할 때 영유아의 연령이나 성별, 기질 등 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적응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영유아 스스로에게 어린이집 적응을 쉽게 돕는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적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첫째로, 연령에 따른 적응을 살펴보면, 손인숙, 송진숙(2004)은 영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적응 행동과 심한 저항을 나타내고 이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비교적 적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김희정(2012) 역시 영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초기 적응시간이 길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와 반대로 현은강, 태진(2000)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0개월 이전의 영아 10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영유아들의 성별에 따른 적응을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와 비교하면 초기 적응 능력이 높다고 보고(안선희, 2002; 임말자, 최경순, 2003; 정아름, 2016; 현은강, 태진, 2000)하였고, 박영아(2013) 역시 친 사회적 행동

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하며 어린이집 일과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반면,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손인숙, 2001; 장성덕, 2007)와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지현(2010)은 그의 연구에서 자녀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 수준은 남아와 여아가 거의 비슷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적응 하위 영역 중 친 사회적 행동은 남아가 여아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자녀의 긍정적 감정이나 또래 관계, 자아 강도 및 어린이집 일과에 대한 적응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 보고 하였다.

끝으로, 영유아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어지는 주변 상황, 사람, 사건에 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은 모두 다르며, 영유아마다 개인적 차이가 있다. 영유아마다 부모와 잘 헤어지고, 중간식을 잘 먹고, 충분한 낮잠과 수면을 취하고, 또래 친구나 교사에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이지만, 자주 울거나 떼를 쓰고, 잘 자지도 먹지도 않으며, 또래 친구나 교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질은 영유아의 정서나 운동 그리고 주의 집중 반응성, 자기조절에서의 개인차에 기초하여 개인마다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을 의미하며(Rothbart & Bates, 1998), 외부의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 반응하는 예측된 방식의 개인적 성향이고(이영·이정희 외, 2009),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의 안정된 일관성 있는 특성(Goldsmith, 1987)이다. 이러한 기질에 따른 적응의 차이 및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는 영유아마다 다르며, 김난영(2000)은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자극에 빠르게 접근하거나, 좋은 기분을 나타내며, 하나의 활동에 오래 지속하는 유아일수록 유치원에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기질에 따른 불안 정도를 살펴본 연구(Belsky & Rovine, 1987)에서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가 순한 영

아에 비교해 낯선 환경에 더 불안해하였다. 영아의 기질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연구(Cooney & Holmes, 1998)는 보통이나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보다 순한 영아가 적응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치원 적응에서도 까다로운 영아보다 순한 영아가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영미, 1990; Thoma & Chess, 1977).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이나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영유아의 적응에 기질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희, 1996; Zajdeman & Minnes, 1991)고 여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영유아의 일반적인 배경인 성별이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가정환경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영유아에게 있어 가정환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 할 수 있지만, 영유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양육 태도 및 애착, 부모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의 첫째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병은(2004)은 25개월~37개월의 영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태도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와의 협동심, 교사와의 관계 및 지시에 대한 이해력 등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고, 반면 거부적인 양육 태도는 영유아가 불안감을 느끼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근감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는 등 어린이집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김효녀(2005)는 자신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 태도는 부정적 상관관계로 유아의 적응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온정·격려 양육 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밀접한 긍정적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황미숙(2005)은 애정적-자율적 어머니 양육 태도 집단과 거부적-통제적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어머니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숙란(2007)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 태도가 통제적 일수록 유치원 적응능력이 낮아지고, 어머니 양육 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유치원 적응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애정적이고, 긍정적·일관적 일수록 어린이집에 더 잘 적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애착에 관한 김숙령(1995)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의 유아 모두가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일수록 유치원에서 적대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불안한 경향, 두려워하는 경향이 낮은 수준으로 보이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Laurizen은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영아의 기질, 연령, 건강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영아 간 애착의 질, 부모의 직업만족도 등 부모의 특성, 보육교사의 특성 및 환경특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요인을 제시하였다(박재학, 2014). 12~60개월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Zajdeman과 Minnes(1991)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애착안정성,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기관의 질을 설명하고 그 중의 아동의 기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오종은, 2001). 3세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유형과 유치원 생활 적응 행동연구(오재현, 이지현, 2005)에 의하면, 어머니와 교사에 대해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적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대체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혼자 놀거나 어색해하고, 우물쭈물한 행동, 공격적인 행동, 새로움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사에 대한 애착 정도를 높고 낮은 집단 간 비교에서 낮은 집단의 유아는 또래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함께 놀지 못하고, 혼자 고독한 행동 및 어색한 행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착과 초기 적응과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오중은(2001)에 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는 영아는 유아와 달리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안전기저로 여기고 어머니와의 애착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애착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고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집에 더욱 더 잘 적응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부모의 갈등이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재석(1992)의 연구에서 가정 내 부부 상호 간의 긴장과 불화 및 갈등은 영유아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적 부적응 또는 이탈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경제 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적응(박민선, 박성연, 1999)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는 대체로 악화하며 이는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 더욱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보이며(손인숙, 2001), 부모갈등과 유아의 적응 관계에서 양육 태도 매개 효과를 연구한 윤광미(2011)는 부모갈등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나 양육 태도는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잦은 부모의 갈등을 경험하는 영유아는 심리적·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어린이집 적응 역시 어려움을

결게 되므로 부모의 갈등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환경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자동으로 생겨나는 가정 내의 갈등 및 불화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 환경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영유아들에게 있어 어린이집은 또 다른 가정과도 같은 곳이다. 하루 중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어린이집 환경이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이라면 부모들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들의 행동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선희(2002)는 그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유치원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아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유치원 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되며, 유치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안정적인 영유아와 교사의 관계는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탐색 활동 및 또래 관계, 일상생활 등을 촉진하며, 새로운 상황 속에 독립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정서적·물리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보다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한재영, 2013). 영유아들에게 교사는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이다. 이러한 관계는 보육을 통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영유아는 교사의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교사는 적절한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학습 및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또한, 어린이집 일과 중 영유아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요구를 수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무한한 관심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로 인하여 출생 이후 계속되었던 부모에게 의존하던 영유아가 어린이집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교사에게도 애착이 형성되고 의존하며 안정적인 적응을 이루게 된다.

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고 보육 실내의 안정을 찾아가더라도,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구성하고 있는 보육환경이나 놀잇감과 조화를 이루고, 또래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함께 놀이하고, 사회적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어린이집에 완전한 적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영아의 초기적응과 어린이집 보육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편안한 분위기와 다양한 놀잇감으로 구성된 물리적 환경과 교사의 상호작용 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구수연, 2005; 심현정, 2002; 이용주, 2004)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김수진(2006)은 영유아의 발달과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환경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은영(2011)의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들이 정해진 보육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작용하는 외적 조건의 총체이고 이는 영유아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학습 경험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영역 구분과 놀잇감,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더욱 활발하게 놀이 행동을 하며(강진아, 1998), 어린이집 질적 수준이 높은 시설의 영유아들이 그렇지 못한 시설의 영유아보다 감정조망 수용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친 사회적 행동 유형인 사회생활 기본

능력, 기관적응 능력, 친구 관계 형성능력, 공격성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인, 200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일차적으로 애착의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잘 분리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영유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 보육교사, 어린이집 일상, 놀잇감 및 놀이 등 여러 방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긍정적인 관계 맺으며 생활해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시작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와의 관계 파악을 위한 양육 태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기 위한 변인으로 영유아 개인 변인, 가정환경 변인, 유아교육 기관 변인으로 나누고 각 변인의 하위 영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주제 관련 변인 어머니 양육 태도와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개인 변인 중 성별 및 연령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강순덕,

2014; 구수연, 2005; 김선희, 2010; 김유환, 2015; 박향미, 2015; 안선희, 2002; 양숙경·문혁준, 2010; 오종은, 2001; 이병은, 2004; 임말자, 최경순, 2003; 장혜정, 2003; 현온강·태진, 2000)가 많았으며, 반대로 김민화(2016), 장성덕(2007), 최윤숙(2016)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영아(2013), 송진숙·권희경(2003), 이현경(2002)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는 보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적응은 연령이 많을수록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김춘화, 2015; 오종은, 2001; 임민영, 2016; 전미경, 2003; 정아름, 2016)가 대부분이었으나, 양은주(2010)는 영유아의 연령 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영아를 연구 대상으로 한 김연진(2005)에 의하면, 2세 영아보다 2세 미만의 영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즉, 2세 영아보다 2세 미만의 영아가 보육시설에 더 잘 적응하고, 성별에서는 남아가 유의미한 결과로 여아보다 보육시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 일부를 포함하는 만2세 미만, 만2세, 만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지현(2010)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초기 적응 하위 영역 중 자녀의 긍정적 감정이나 또래 관계, 자아 강도 및 일과에 대한 적응은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친 사회적 행동에서 남아가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2세 영아들이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더 잘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친 사회적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유환(2015)의 연구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사회정서 적응과 일과 적응에서 더 적응을 잘하며, 연구 대상인 만 4세와 만 5세의 연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덕(2007)은 그의 연구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 적응을 위한 척도로 Behar & Stringfield가 사용한 PBQ(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근거로 오재연(2006)이 수정·보완한 척도인 유아교육 기관 생활 적응 행동검사를 사용한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유아교육 기관 적응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특히 환경 적응 문제행동과 또래 협력 문제행동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는 비록 적응의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빠르게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때는 여아보다 더 적응을 잘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어린이집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민화(2016)는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중 최종학력과 경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애정적 양육 태도는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4년제 이하 이거나 경제 수준이 중 이하일수록, 거부적 태도는 경제적 수준이 중 이상일수록, 자율적 태도는 경제 수준이 중 이상일 때 더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장혜정(2003)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초기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자율-통제적, 애정-거부적 태도로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자율-통제적 양육 태도에서 자율적이 일수록, 애정-거부적 양육 태도에서 거부적일수록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율적인 측면의 어머니 태도는 자녀를 불만이나 비난하지 않고, 칭찬과 보상으로, 유아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민주적 관계 속에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행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능동적이고 독립적, 사회적인 태도를 습득하여 교사나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치원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부적인 측면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확산으로 한, 두 명의 자녀로 어머니들은 지나치게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자세로 자녀의 그릇된 행동이나 감정까지도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향으로 인한 유아의 반응이 지극히 수동적이며, 어머니 의존도가 높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유치원 환경의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원 환경에 적응의 곤란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음으로 여겨진다.

김희정(2012)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심미적 안녕감과 유아교육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양육 태도, 애정·거부적 양육 태도는 유아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교육 기관 적응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상호작용 효과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육 태도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통제·애정적 일수록 유아의 심리적 안녕감 하위 영역인 우울·정서불안 다소 안정적이었으며, 통제·거부적 양육 태도일수록 우울·정서불안이 높은 것으로, 자율·애정적 양육 태도일수록 주의력 결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통제·애정적 일수록 유아교육 기관 적응의 하위 영역인 친사회성, 기관 정서, 일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자율·애정적 양육 태도일수록 자아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엄일숙(2013)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적응 하위 영역인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적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등 어린이집 적응 관련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대상인 영유아가 하루 빠르게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도울 방법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5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만 5세 영유아의 어머니와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만 1세~ 만 5세 영유아의 어머니 287명과 만 1세~ 만 5세 영유아의 담임교사 3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중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자료와 충실하지 못하게 응답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한 총 254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Ⅲ -1 >과 같다.

연구 분석에 사용한 254명의 응답을 기초로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중 자녀의 성비는 남자가 52.8%, 여자가 47.2%로 남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35세(28.3%), 41세 이상(20.1%), 26~30세(3.9%)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34.6%), 고등학교 졸업(16.5%), 대학원 재학 이상(5.9%)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로는 맞벌이가 57.1%로 나타나 전업주부(42.9%)보다 비율이 높았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54)

구 분	내 용	빈도(명)	백분율(%)
자녀 성별	남자	134	52.8
	여자	120	47.2
어머니 연령	26~30세	10	3.9
	31~35세	72	28.3
	36~40세	121	47.6
	41세 이상	51	20.1
어머니 학력	고졸	42	16.5
	전문대졸	88	34.6
	4년제대졸	109	42.9
	대학원 재학 이상	15	5.9
취업여부	맞벌이	145	57.1
	전업주부	109	42.9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어머니 양육 태도 검사지 48문항과 어린이집 적응 설문지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 태도 검사지는 이원영(1983)이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하고 박정연(2009), 김민화(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통제적, 거부적, 자율적, 애정적 태도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하위영역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5번 방향일수록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문항마다 1번부터 1, 2, 3, 4, 5 점수를 주었고,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반대로 1번 방향일수록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1번부터 5, 4, 3, 2, 1 점수를 주어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 태도가 된다.

김민화(2016)연구에서는 애정적 양육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866, 거부적 양육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879, 자율적 양육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788, 통제적 양육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894, 전체적 양육 태도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7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계수는 <표 III-2>와 같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 검사지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14$ 로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애정적 태도	12	1, 5, 7, 23, 24, 25, 26, 27, 28*, 35, 36, 37	.746
거부적 태도	12	3, 4, 14, 16, 17, 19, 29, 30, 31, 32, 33, 34	.816
자율적 태도	12	2, 6, 11, 12, 13, 15, 38, 39, 40, 41, 42, 43	.738
통제적 태도	12	8, 9, 10, 18, 20, 21, 22, 44, 45, 46, 47, 48	.714
전 체	48		.814

* 역채점문항

나. 어린이집 적응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적응 척도는 오종은(2001)이 Jewsuwan, Luster, Kostelink(1992)의 PAQ(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것으로 김인경(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PAQ 검사는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담임교사가 영유아의 특정 행동이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가를 평정하는 것으로 적응점수의 채점 시 역 문항은 10번, 11번, 16번, 17번, 27번이며, 이 질문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질문지는 크게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 사회적 행동 4문항, 긍정적 감정 7문항, 또래 관계 6문항, 자아 강도 4문항, 하루일과의 적응 9문항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매우 그렇다’ 5점에

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친 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측면의 사회적 행동을 말하며, 긍정적 감정은 스스로의 기본적 신뢰감이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한다. 또래 관계는 또래 관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며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 강도는 자기 주장성, 주도성 및 독립성과 자신감을 말한다. 그리고 하루일과의 적응은 하루 일과 속 상황이나 변화에 대하여 어울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인경(2016)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적응 검사 도구의 하위영역별 전체 신뢰도는 .868이었으며,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732, 긍정적 감정에 대한 신뢰도는 .866, 또래관계에 대한 신뢰도는 .732, 자아강도에 대한 신뢰도는 .803, 하루 일과의 적응에 대한 신뢰도는 .8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표 III-3>과 같으며,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32로 비교적 높으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어린이집 적응 검사도구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친사회적 행동	4	1, 2, 3, 4	.771
긍정적 감정	7	5, 6, 7, 8, 9, 10*, 11*	.751
또래관계	6	12, 13, 14, 15, 16*, 17*	.800
자아강도	4	18, 19, 20, 21	.793
하루일과의 적응	9	22, 23, 24, 25, 26, 27*, 28, 29, 30	.823
전 체	30	1-30	.932

* 역채점 문항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5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만 5세 영유아의 어머니 287명과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37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및 회수를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연구자가 직접 해당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본 연구의 방법과 과정을 일차적으로 안내하고, 재원하고 있는 만 1세~ 만 5세 영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설문지와 가정 협조 통신문을 추가 제공하여 연구 참가 동의와 설문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쓰이며, 연구 목적이 완료되면 일체 폐기함을 안내하였다.

설문지는 총 287부가 만 1세~5세 영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에게 각각 배부되었으며 어머니용과 담임 교사용 설문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기재 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5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통계 처리는 SPSS ver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인 만1세~만5세 영유아와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애정적 태도가 3.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율적 태도(3.46점), 통제적 태도(3.32점), 거부적 태도(2.58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적응을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하루일과의 적응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 사회적 행동(3.48점), 자아 강도(3.37점), 긍정적 감정(3.30점), 또래 관계(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변인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254	3	5	3.91	.383
	거부적 태도	254	1	5	2.58	.507
	자율적 태도	254	2	5	3.46	.441
	통제적 태도	254	2	5	3.32	.451
	전체	254	11	18	13.27	1.070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254	1	5	3.48	.661
	긍정적 감정	254	2	5	3.30	.527
	또래관계	254	2	4	3.00	.471
	자아강도	254	1	5	3.37	.643
	하루일과의 적응	254	2	5	3.53	.511
	전체	254	9	24	16.68	2.306

2. 배경 변인별 차이 검증

가.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자녀 성별, 어머니 취업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 차이

자녀 성별,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자녀 성별,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N=254)

양육태도			N	M	SD	t
애정적 태도	자녀 성별	남자	134	3.93	.391	.892
		여자	120	3.89	.375	
	어머니 취업여부	맞벌이	145	3.89	.383	-.752
		전업주부	109	3.93	.385	
거부적 태도	자녀 성별	남자	134	2.56	.514	-.745
		여자	120	2.61	.500	
	어머니 취업여부	맞벌이	145	2.61	.544	.869
		전업주부	109	2.55	.453	
자율적 태도	자녀 성별	남자	134	3.44	.458	-1.117
		여자	120	3.50	.420	
	어머니 취업여부	맞벌이	145	3.49	.465	1.070
		전업주부	109	3.43	.407	
통제적 태도	자녀 성별	남자	134	3.30	.471	-.539
		여자	120	3.33	.428	
	어머니 취업여부	맞벌이	145	3.34	.487	.882
		전업주부	109	3.29	.397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자녀 성별	남자	134	13.23	1.072	-.721
		여자	120	13.32	1.070	
	어머니 취업여부	맞벌이	145	13.33	1.191	.984
		전업주부	109	13.20	.885	

(2)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양육 태도 차이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양육 태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 연령에 따른 양육 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태도 하위변인 중 애정적 태도는 유의수준 .05에서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검증결과 학력 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자율적 태도도 유의수준 .05에서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대학원 재학 이상(M=3.71)이 고졸(M=3.31)보다 자율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태도도 유의수준 .05에서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전문대 졸업 학력(M=3.41)이 4년제 대학 졸업(M=3.22)보다 통제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N=254)

양육태도		N	M	SD	F	Scheffe
애정적 태도	어머니 연령	26~30세	10	3.82	1.272	-
		31~35세	72	3.90		
		36~40세	121	3.95		
		41세 이상	51	3.84		
		고졸 ¹⁾	42	3.78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²⁾	88	3.89	3.141*	N.S
		4년제 대졸 ³⁾	109	3.96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4.06		
거부적 태도	어머니 연령	26~30세	10	2.51	.377	-
		31~35세	72	2.60		
		36~40세	121	2.60		

	어머니 학력	41세 이상	51	2.53	.377	.239	-
		고졸 ¹⁾	42	2.58	.417		
		전문대졸 ²⁾	88	2.61	.564		
		4년제 대졸 ³⁾	109	2.58	.491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2.50	.537		
자율적 태도	어머니 연령	26~30세	10	3.33	.461	.556	-
		31~35세	72	3.44	.431		
		36~40세	121	3.49	.417		
	어머니 학력	41세 이상	51	3.48	.509	3.711*	4>1
		고졸 ¹⁾	42	3.31	.308		
		전문대졸 ²⁾	88	3.44	.484		
		4년제 대졸 ³⁾	109	3.51	.434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3.71	.418		
	통제적 태도	26~30세	10	3.11	.505	1.021	-
		31~35세	72	3.28	.448		
		36~40세	121	3.35	.405		
		41세 이상	51	3.33	.538		
		고졸 ¹⁾	42	3.35	.465		
어머니 양육 태도 (전체)	어머니 연령	26~30세	10	12.76	.832	1.487	-
		31~35세	72	13.22	1.321		
		36~40세	121	13.39	.852		
		41세 이상	51	13.17	1.161		
		고졸 ¹⁾	42	13.02	.797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²⁾	88	13.35	1.226	1.491	-
		4년제 대졸 ³⁾	109	13.26	.995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13.61	1.223		
		고졸 ¹⁾	42	13.02	.797		
		전문대졸 ²⁾	88	13.35	1.226		

* $p < .05$

나. 배경 변인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

배경 변인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자녀 성별, 어머니 취업 유무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

자녀 성별, 어머니 취업 유무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변인 중 자아 강도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아이의 자아 강도($M=3.46$)가 남자아이의 자아 강도($M=3.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어머니($M=17.06$)의 영유아가 전업주부($M=16.16$) 영유아보다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자아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과 자아 강도는 맞벌이 어머니($M=3.39/3.38$)의 영유아가 전업주부($M=3.17/3.21$) 영유아보다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 관계는 맞벌이 어머니($M=3.01$)의 영유아가 전업주부($M=2.92$) 영유아보다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검증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자녀 성별,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차이(N=254)**

어린이집 적응			N	M	SD	t
친사회적 행동	자녀	남자	134	3.42	.714	-1.595
	성별	여자	120	3.55	.591	
	취업	맞벌이	145	3.54	.667	1.656
	유무	전업주부	109	3.40	.647 .535	
긍정적 감정	자녀	남자	134	3.32	.519	.594
	성별	여자	120	3.28	.519	
	취업	맞벌이	145	3.39	.533	3.425**
	유무	전업주부	109	3.17	.492 .483	
또래관계	자녀	남자	134	3.02	.459	.724
	성별	여자	120	2.98	.459	
	취업	맞벌이	145	3.07	.457	2.445*
	유무	전업주부	109	2.92	.479 .668	
자아강도	자녀	남자	134	3.29	.604	-2.127*
	성별	여자	120	3.46	.604	
	취업	맞벌이	145	3.48	.622	3.401**
	유무	전업주부	109	3.21	.641 .533	
하루일과의 적응	자녀	남자	134	3.52	.487	-.266
	성별	여자	120	3.54	.487	
	취업	맞벌이	145	3.58	.515	1.828
	유무	전업주부	109	3.46	.499	
어린이집 적응 (전체)	자녀	남자	134	16.56	2.439	-.820
	성별	여자	120	16.80	2.152	
	취업	맞벌이	145	17.06	2.285	3.119**
	유무	전업주부	109	16.16	2.243	

* $p < .05$, ** $p < .01$

2)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연령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적응 하위변인 중 친 사회적 행동이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적응 하위변인 중 자아 강도가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대학원 재학 이상(M=3.77)의 영유아가 고졸(M=3.20) 영유아보다 자아 긍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어머니 연령, 학력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N=254)

어린이집 적응		N	M	SD	F	Scheffe
친사회 적 행동	어머니 연령	26~30세	10	2.98	3.246*	N.S
		31~35세	72	3.38		
		36~40세	121	3.54		
		41세 이상	51	3.57		
	어머니 학력	고졸 ¹⁾	42	3.45	.610	
		전문대졸 ²⁾	88	3.53		
		4년제 대졸 ³⁾	109	3.43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3.63		
긍정적 감정	어머니 연령	26~30세	10	3.06	1.563	-
		31~35세	72	3.38		
		36~40세	121	3.26		
		41세 이상	51	3.31		
	어머니 학력	고졸 ¹⁾	42	3.17	1.236	
		전문대졸 ²⁾	88	3.31		
		4년제 대졸 ³⁾	109	3.31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3.45		

또래 관계	어머니 연령	26~30세	10	2.85	.616	.483	-
		31~35세	72	3.03	.526		
		36~40세	121	2.99	.436		
		41세 이상	51	3.02	.449		
	어머니 학력	고졸 ¹⁾	42	3.03	.460	.317	
		전문대졸 ²⁾	88	2.98	.418		
		4년제 대졸 ³⁾	109	3.00	.513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3.10	.511		
자아 강도	어머니 연령	26~30세	10	3.18	.951	1.811	-
		31~35세	72	3.43	.571		
		36~40세	121	3.29	.658		
		41세 이상	51	3.50	.619		
	어머니 학력	고졸 ¹⁾	42	3.20	.700	3.515*	4>1
		전문대졸 ²⁾	88	3.31	.567		
		4년제 대졸 ³⁾	109	3.42	.681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3.77	.406		
하루 일과 적응	어머니 연령	26~30세	10	3.31	.797	.694	-
		31~35세	72	3.54	.563		
		36~40세	121	3.54	.429		
		41세 이상	51	3.51	.550		
	어머니 학력	고졸 ¹⁾	42	3.47	.502	.645	
		전문대졸 ²⁾	88	3.55	.484		
		4년제 대졸 ³⁾	109	3.51	.529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3.67	.570		
어린이집 적응 (전체)	어머니 연령	26~30세	10	15.37	3.549	1.296	-
		31~35세	72	16.78	2.360		
		36~40세	121	16.63	2.100		
		41세 이상	51	16.90	2.394		
	어머니 학력	고졸 ¹⁾	42	16.32	2.385	1.168	
		전문대졸 ²⁾	88	16.67	2.012		
		4년제 대졸 ³⁾	109	16.68	2.478		
		대학원 재학 이상 ⁴⁾	15	17.62	2.370		

* $p<.05$

3.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r=.369,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적 태도는 긍정적 감정($r=.288, p<.001$), 또래 관계($r=.179, p<.01$)와 정적관계를 보이며, 자율적 태도는 친 사회적 행동($r=.286, p<.001$), 긍정적 감정($r=.332, p<.001$), 또래 관계($r=.278, p<.001$), 자아 강도($r=.300, p<.001$), 하루일과의 적응($r=.266, p<.001$)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제적 태도도 친 사회적 행동($r=.260, p<.001$), 긍정적 감정($r=.311, p<.001$), 또래 관계($r=.260, p<.001$), 자아 강도($r=.139, p<.05$), 하루일과의 적응($r=.186, p<.01$)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애정적 태도는 친 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자아 강도, 하루일과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는 <표 IV-6>와 같다.

<표 IV-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하루일과의 적응	어머니의 양육 태도
거부적 태도	-.333***	1								
자율적 태도	.426***	.045	1							
통제적 태도	.132*	.320***	.295***	1						
친사회적 행동	.109	.089	.286***	.260***	1					
긍정적 감정	.082	.288***	.332***	.311***	.640***	1				
또래관계	.024	.179**	.278***	.260***	.528***	.702***	1			
자아강도	.104	.065	.300***	.139*	.484***	.649***	.596***	1		
하루일과의 적응	.070	.003	.266***	.186**	.630***	.595***	.570***	.533***	1	
어머니의 양육 태도	.432***	.508***	.710***	.742***	.309***	.434***	.317***	.250***	.214**	1
어린이 집 적응	.099	.147*	.357***	.279***	.815***	.868***	.809***	.806***	.803***	.369***

* $p < .05$, ** $p < .01$, *** $p < .001$

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6.7%($R^2=.16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자율적 태도($\beta=.321$, $p<.001$)와 통제적 태도($\beta=.168$, $p<.01$)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7>와 같다.

<표 IV-7>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상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β	t
	8.136	1.866	4.359
애정적 태도	-.230	.423	-.038
거부적 태도	.299	.306	.066
자율적 태도	1.679	.350	.321
통제적 태도	.859	.331	.168
$R^2=.167$ $F=12.514^{***}$			

** $p<.01$, ***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의

첫째,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어머니 연령, 학력, 취업여부, 자녀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를 위해 자녀의 성별,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 취업의 유무를 배경 변인으로 정하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 성별, 어머니의 연령 및 취업 여부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김민화, 2016; 윤나경, 2013; 이병은, 2004; 이지현, 2010)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연령별 집단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김석현(200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맞벌이 및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 사회구조에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 만행 되었던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현대사회의 양성평등에 부합한다고 여겨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조인영(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실제 어머니의 취업 여부로 인해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 중 어떻게 지내며, 얼마나 즐겁게 보내느냐의

문제로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 자율적 양육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대학원 재학 이상일수록 고졸 보다 자율적 태도가 높고, 통제적 양육 태도는 전문대 졸업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나경(2013)의 연구 결과인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율적 양육 태도가 높고, 통제적 양육 태도는 통계상 4년제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하 어머니보다 높았지만, 사후 검증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과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여길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 집단 간 비교에서 전문대 졸업 학력이나 4년제 대학 졸업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통계적으로 자율적 양육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검사지 답변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출 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율적 양육 태도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집착하기보다는 관대하고 허용적이며, 늘 자율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학력의 어머니일수록 검사지 답변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과 규율로 활동을 제한하고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며, 부모를 어렵게 알고 순종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경 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는 하위변인 중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무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김효녀(2005)의 연구결과와 가정환경에 따른 유아의 적응에서 부모의 연령이 다소 평균의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송진숙, 권희경(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자아이의 자아 강도가 남자아이의 자아 강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무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김효녀(2005), 송진숙, 권희경(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성에 있어 조금 더 높게 나온 구수연(2005), 김유환(2015), 안선희(2002), 최윤숙(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여자아이가 남자 아이와 비교하면 학급 내 규칙을 더 잘 따르며 협조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임말자, 최경순(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여아보다 남아가 더 적응을 잘한다는 김연진(2005), 송진숙(2004)의 연구와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큰 차이가 없다(권일선, 1994)는 연구결과로 혼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아와 남아 중 어느 쪽이 어린이집 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연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어머니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자립심이 뛰어나고 안정적이며, 신체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김현진(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어머니 학력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없다는 김유환(2011)의 연구와는 상반되며,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직업이 있는 취업모의 자녀가 그렇지 못한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어린이집 하루일과 적응을 더 잘하며 어머니의 학력 구간 중 전문대 졸업 어머니의 자녀들이 친 사회성 및 또래 간 적응과 자아 상태에서 높은 적응력을 나타낸 박향미(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갖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가 늘게 되고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영유아들에 대한 적응 검사지 답변에서 그렇지 못한 영유아에 비교해 주변 환경이나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탐색하고, 자기 생각이나 요구 등에서 뚜렷하게 소신껏 표현하고, 더욱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임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민화(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 양육 태도가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은 김효녀(2005)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어린이집 적응이 부적 상관을 보인 양은주(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어머니 양육 태도 및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영유아의 긍정적 감정과 또래 관계가 높고, 자율적·통제적 일수록 친 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및 자아 강도, 하루일과의 적응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애정적 양육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일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잘하며, 애정적 양육 태도는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란(1998)의 연구에서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기관 적응에 정적상관 결과를 나타낸 것과 일부 일치하며,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거부적 양육 태도가 부적 상관을 보인 박향미(2015), 권일선(1994)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들에게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영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및 자아 강도, 어린이집 일과에 대한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치며 초기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한다는 이지현(2010)과 이병은(2004)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중시되면서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조화를 위한 협동, 나눔, 양보, 배려 등을 경험하게 한다. 이와 같은 영향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 양육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민주적이고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고, 자녀가 스스로 행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올바르게 자녀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은 통제하고, 부모의 의도에 맞게 잘 따르지 않을 경우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이는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어머니 양육 태도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여길 수 있으며, 자율적, 통제적, 거부적 양육일수록 영유아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한다는 결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무한 애정, 관심으로 민주적으로 상호작용으로 익숙한 애정적 양육 태도일수록 다른 영유아보다 주변 환경에 호기심이 강하게 되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비교적 빠르게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적응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적응 과정의 시간과 절차가 비교적 단축되며, 불안, 갈등, 애착 등 적응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애정적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Schaefer 양육 태도 모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애정-거부 그리고 자율-통제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애정적 양육 태도와 자율적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거부적 양육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정적인 영향력은 행사하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 통제적일수록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어머니 양육 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적응을 더 잘한다는 장혜정(2003)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며, 자율적 양육 태도의 유아가 긍정적이며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김혜영(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병은(2004)의 연구와 같이 통제적 양육 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양육 태도 성향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 스스로 행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주며 함께 놀이 활동을 하는 등 자녀와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행동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행동

과 태도는 자녀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느끼게 하고 자율성을 심어주게 되며 어린이집에서 또래나 주변 사람들과 수용적·능동적 태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인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 태도가 영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및 자아 강도, 하루일과의 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어린이집 적응을 잘하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

또한, 통제적 양육 태도 성향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무조건 제약하고 간섭하며, 억압, 지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규율과 규칙을 배우고 기본적인 습관 등을 익히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영유아들은 자기 통제력이나 자율성이 향상되어 어린이집(학급) 내의 생활에서 적절한 규칙을 지키면서 스스로 ‘나눔’ 과 ‘배려’ 그리고 ‘협동’ ‘절제’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경험하면서 더욱 빠르게 안정적인 적응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적절한 제한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통제를 순종적으로 잘 따르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적응을 잘한다고 여길 수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 태도는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적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거부적 양육 태도가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친 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와 자아 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에 있어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이지현(2010)의 연구 결과와 권일선(1994), 박재학(2014), 이병은(2004)의 애정적 양육 태도가 긍정의 의미로 어린이집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부적 양육 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달랐으며,

애정·거부적인 양육 태도는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희정(201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애정적 양육 태도와 거부적 양육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애정적 양육 태도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늘 지지하며, 수용하는 자세로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양육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인 어린이집 생활에서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어린이집적응을 위한 특별한 행동이나 노력은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거부적인 양육 태도의 어머니들은 애정 없는 감정과 행동으로 자녀를 짐스럽게 여기거나 귀찮아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해도 내버려 두거나 돌보지 않으며, 무관심하거나 방임적으로 대하게 됨으로서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 중에 사회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거나 어린이집적응과는 무관한 행동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2.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영유아의 배경 변인별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 유무, 자녀의 성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에서 대학원 재학 이상일수록 자율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 학력이 통제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자녀의 성별에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자아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일수록 자아강도가 높았으며, 맞벌이 어머니가 긍정적 감정과 자아 강도, 또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 태도는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와 정적관계를 보였고, 자율적 양육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는 친 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자아 강도, 하루일과의 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애정적 양육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율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애정적 또는 거부적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적응 관련 후속연구 방향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5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1세~ 만 5세 영유아와 어머니, 담임교사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므로, 추후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표본 수집 지역 및 표본의 수를 더욱 많이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위한 독립변인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만으로 제한하였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진출이나 맞벌이 어머니의 증가로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 조부모, 기타 친인척, 조기 어린이집(교육기관) 입소로 담임교사 등에 의해 대리 양육이 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대리양육자들이 영유아들의 어린이집(교육기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담임교사들의 질문지에 의해 해답을 얻었다. 하지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영유아가 직접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유아용 질문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영유아들의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그들의 수준에서 표현 할 수 있는 그림이나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유아용 수준의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희 (2017). 만 3세 학급유아들의 학기 초 어린이집 적응 지원방안에 관한 실행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순덕 (201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변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선 (2010).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아 (1998). 탁아 기관의 질과 영아의 탐색/놀이 행동과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수연 (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일선 (199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영 (2000).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화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민 (2011). 어린이집 교사의 동작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현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0).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6).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및 교사의 창의적 역할수행과 유아 창의성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정서적 문제행동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1), 21-38.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연진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3(1), 19-34.
- 김영옥 (2003). 어머니와 교사의 대한 유아의 애착안전성 및 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6). 기질 및 양육 행동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 유아학회지, 17(2), 19-31.
- 김유환 (2011). 어머니-교사관계가 유아-교사관계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환 (2015).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경 (2016). 원아적응일지를 통한 학부모-교사의 의사소통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1988).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정인 (2001).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감성조망 수용능력 과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 서주현 (2014). 부모교육.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춘화 (2015). 어머니-보육교사 관계와 협력행동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연 (2016). 만4세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적응을 통해서 본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형성.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관련 변인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0). 취원 전 보육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교실적응행동에 대한 교사의 신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04).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의 성격특성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녀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선, 박성연 (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한국아동학회지**, 20(2), 57-74.
- 박수현 (2018).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아 (2013).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과 교사-유아 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별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76, 1-24.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박재학 (2014). 유아의 가정환경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연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향미 (2015). 영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6). 2016 보육통계자료.
- 서창구 (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숙란 (2007).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인숙 (2001). 유아의 유치원 적응 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인숙, 송진숙 (2004).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교육 및 유아-교사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11-128.
- 송진숙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 송진숙, 권희경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 심현정 (2002). 영아의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 (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01-219.
- 양숙경, 문혁준 (2010). 어머니의 불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만 1·2세반

-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28(2), 131-146.
- 양은주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 교사의 애착형성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일숙 (2013). **영아의 성별 및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재연 (2006). 시간경과에 따른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생활 적응행동연구. **아동학회지**, 27(2), 71-84.
- 오재현, 이지현 (2005). 3세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유형과 유치원생활 적응행동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3), 385-412.
- 오중은 (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광미 (201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간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나경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학위논문.
- 이미경 (2012).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양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은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이정희, 김온기, 이미란, 조성연 (2009). **영유아발달**. 서울 : 학지사.

- 이용주 (2004). 어린이집 적응과정이 나타난 만 1세 영아의 체험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69-193.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란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2002).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논문집-동남보건대학**, 20(2), 252-272.
- 이희영 (2001).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유치원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말자, 최경순 (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자극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89-207.
- 임민영 (2016).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일현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행복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덕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취업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동, 류현수 (2012). **부모교육**. 서울 : 태영.
- 장혜정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초기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 (200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아름 (2016).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적응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원식 (1989).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조인영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유
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희 (2017).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 또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경화 (2013).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놀이성 및 유아의 유아
교육기관적응도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희영 (1992). 한국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윤숙 (2016).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
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재석 (1992). 현대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최현진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감성지능이 유아의 친사회
적 행동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한국보육진흥원 (2016). 또 하나의 어린이집 생활이야기.

한재영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
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은강, 태진 (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28(3), 25-42.

황미숙 (200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elsky, J., & Rovine, M. (1987).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Cooney, R. R., & Holmes, D. L. (1998).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adaptation to formal schooling.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355.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ishbein, M. S.,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 Hinshaw, R. P. (1942).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the problem of norms. *Psychological Review*, 49, 284-292.
- Jewsuwan, R., & Luster, T., & Kostelin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s.)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105-176). New York : Wiley.

Schaefer, E. S. (1959).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59, 226-235.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 Mazel.

Watson, J. B. (1965).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behaviorst*. Philadelphia: Ippincott.

Zajdeman H. S., & Minnes P. M. (1991). Predictors of children's adjustments to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74, 11-28.



(부록)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지 (어머니용)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학과에 재학 중이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1세~만5세 영유아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어린이집 적응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어머니 양육태도를 제시하고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소중한 답변이 영유아들을 이해하고 본 연구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하며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 31조 (통계자료의 이용)와 제 33조 (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대상 영유아의 어머니께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지도교수 : 주 동 범

연구자 : 백 은 정

(ejbaek1999@naver.com)

※ 설문조사 응답 전 동의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응답한 설문내용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응답자 확인 서명 : _____ (인 또는 서명)

※ 응답자 기초자료

☞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해당하는 것에 V표 하거나,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 이상일 경우 한 자녀만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 ② 여)
2. 귀하의 자녀의 출생 순위는 어디에 해당 하나요?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이상
3. 어머니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총 명)
4. 귀하 자녀의 연령은? (만 세)
5. 어머니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① 26~30세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세 ⑤ 46세 이상
6.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졸업(2년제, 3년제)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⑤ 기타 ()
7. 어머니의 취업 여부 (① 맞벌이 / ② 전업 주부)
8.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공무원 ③ 사무직 ④ 판매 및 서비스직
⑤ 생산·제조업직 ⑥ 전업주부 ⑦ 기타 ()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문항)

	내 용	① 전혀그렇 지 않다	② 거의그렇 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부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께서는 사물에 대한 판단을 잘하고 이해도 빠른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행동을 못 본체 할 수 없어 야단을 치거나 비평을 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에게 문제되는 행동이 있을 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끄집어 내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하여 도움을 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와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나쁜 친구와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 들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가 놀거나 공부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가 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든 일이라도 혼자 하도록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자녀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리를 찾아 놀게 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가 다른 아이나 어른과 잘 사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내 용	① 전혀그렇 지 않다	② 거의그렇 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부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직장(가정)일을 하다가 권태롭거나 지겹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자녀에게 가능한 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0	자녀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1	자녀의 어린이집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보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2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어머니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것이 펍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해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4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 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5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겺으로 잘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6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7	자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8	자녀들이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9	자녀 양육이 즐거울 때보다 짐스러운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0	자녀의 행동 및 태도에 고쳐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1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님께서는 참으려고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때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2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으니까?	①	②	③	④	⑤

	내 용	① 전혀그렇 지 않다	② 거의그렇 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부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4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5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워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6	자녀들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칭찬도 하시는 편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7	어린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노는 방식으로 허물없이 함께 놀아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8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9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독서도 하고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물기도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0	어머니께서는 정치·경제·사회문제 및 여러 방면에 대해 폭 넓은 흥미를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1	집이나 어머니를 떠나 자녀가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2	자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3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4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머니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5	자녀들에게 ‘장손’ ‘맏딸’ 또는 집안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6	자녀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7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8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귀한 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집 적응 질문지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학과에 재학 중이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어린이집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1세~만5세 영유아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어린이집 적응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어머니 양육태도를 제시하고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이 영유아들을 이해하고 본 연구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하며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 31조 (통계자료의 이용)와 제 33조 (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대상 영유아의 선생님께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지도교수 : 주 동 범

연구자 : 백 은 정

(ejbaek1999@naver.com)

※ 설문조사 응답 전 동의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응답한 설문내용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응답자 확인 서명 : _____ (인 또는 서명)

※ 응답자 기초자료

☞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표 하거나,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결혼은?

- ① 미혼 ② 기혼

2. 선생님의 학력은?

- ① 보육교사교육원 ② 2(3)년제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기타 ()

3. 선생님의 전공은?

- ① 유아교육학 ② 보육학 ③ 아동학 ④ 복지학
⑤ 기타 ()

4.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 ① 1~2년 ② 3~5년 ③ 6~9년 ④ 10~14년 ⑤ 15년 이상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문항)

▶ 영유아 이름 () ▶ 영유아 성별 (남 / 여)

▶ 영유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내 용	① 전혀그렇 지 않다	② 거의그렇 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부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친구나 선생님에게 관심 있는 행동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난감 등을 나누어 쓴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나 선생님이 기분 나빠 할 때 관심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차례를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5	활기차다(밝은 얼굴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편안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8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기 의사를 몸짓이나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놀잇감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12	대체로 친구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아이가 진행 중인 활동에 건설적으로 개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친구와 놀잇감을 함께 가지고 놀거나 교대로 가지고 논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아이의 놀잇감이나 물건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아이에게 신체적 공격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독립적으로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기주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 용	① 전혀그렇 지 않다	② 거의그렇 지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부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보호자와 비교적 잘 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하루 일과를 이해함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일과 중 대체로 교사에게 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식사, 낮잠의 양과 시간이 규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낮잠을 잘 때 울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불안해한다. (예: 낯선 장소, 낯선 성인의 등장 등)	①	②	③	④	⑤
28	보호자와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적절하게 교사의 관심이나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종합적으로 다른 아이에 비해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충분하게 ② 기대한 것 보다 조금 ③ 기대한 만큼 ④ 기대보다 잘 ⑤ 매우 잘					

♣ 귀한 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